

박명수 “주말 예능으로 큰웃음 드릴게요”

MBC TV 버라이어티 '끼리끼리' 26일 첫 방송

베테랑~신인 10명 출연... “케미 터지면 난리 날 것”
“온 가족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는 예능으로”



베테랑 예능인부터 버라이어티 출연 자체가 처음인 ‘초짜’까지, 10명이나 되는 출연자가 각자 성향에 따라 뭉치고 케미(케미스트리·궁합)를 탐색한다.

MBC TV가 파일럿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정규 편성할 정도로 야심 차게 내놓은 ‘끼리끼리’는 출연자가 성향에 따라 팀을 나눠 게임을 펼치는 예능이다. ‘무한도전’ 이후 오랜만에 론칭하는 야외 버라이어티이기도 하다.

개그맨 박명수(50)는 21일 마포구 삼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무한도전’ 이후 오랜만에 MBC로 복귀하게 됐다. MBC 공채 개그맨으로서 남다른 마음가짐을 가진 곳’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는 “주말 버라이어티를 하게 돼 기쁘다. 오랜만에 주말 저녁 큰 웃음을 드리려고 한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여기 있는 출연자들이 모두 다 독특하다. 지금은 알아가는 과정인데 나중에 (케미가) 터지면 난리가 날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방송사마다 포진한 다른 야외 버라이어티와의 비교에 대해 박명수는 “지상파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새로운 걸 찾는 건 어렵다. 다 비슷하다”면서 “결국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서 독특한 웃음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최근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과 재회한 박명수는 “내 개그를 가장 잘 이해해 주고 받아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재석이다.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다. 1년밖에 안 됐지만 ‘무한도전’에 대한 아련함이 있었고 반가웠다”고 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른 장성규(37)는 ‘대세’라는 수식어에 대해 “부담스럽지만 돌이켜보니 늘 부담과 싸워왔다. 장성규가 이번 부담과 어떻게 싸워 이겨낼 것인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자신했다.

‘끼리끼리’엔 박명수와 장성규, 은지원(42), 이용진(35), 황광희(32) 등 익숙한 방송인들 외에도 모델 정혁(29), 그룹 인피니트의 김성규(31), 배우 인교진(40)과 이수혁(본명 이혁수·32), 농구선수 하승진(35)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한영롱 PD는 출연자 섭외 과정에 대해 “너무 낯설지 않은 분들과 익숙한 분들을 섞으려고 배려했다. 한 분 한 분 섭외하면서 밸런스가 맞게끔 조율하는 과정이 길었다”며 “성향끼리 나눌 수 있는, 색깔이 확실한 분들을 섭외하고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을 많이 물어보지만 일단은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재미있는 예능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5시 첫 방송. /연합뉴스



방송인 박명수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예능프로그램 '끼리끼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TBN 광주교통방송 ‘설날 특별방송’ 진행

고속도로·성묘길 중계차 배치
실시간 교통상황 전달

TBN 광주교통방송(사장 박기수)은 설날을 맞이해 23일 낮 12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TBN 설날교통특별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방송은 관내 주요 지역에 중계차를 배치해 고속도로와 성묘길 실시간 교통상황을 전달하고 국도 1호선, 국도 22호선, 국도 29호선 등 지역 주요 관문에 방송 통신원을 투입해 실 소시간 및 교통흐름을 제공함으로써 귀성, 귀경길의 분산 운행을 도울 예정이다.

매 시간 각 프로그램에서는 귀성, 귀경길의 답답함과 지루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특색있고 재미있는 코너 등을 마련한

다. 특히 ‘설날교통특별방송 출발광주대행진’ (오전8시-10시)에서는하이패밀리 송길원 대표가 출연해 이야기가 있는 행복특강을 할 예정이며 설날교통특별방송 TBN차차차(낮12-오후2시)에서는 MC와 청취자, 게스트로 초대된 가수들이 함께 펼치는 라이브 시간을 선사해 귀성길의 흥을 돋을 계획이다.

한편 23일 오전 11시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순천방향)에서는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순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등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설 연휴 합동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교통방송 주파수는 FM 97.3 MHz(전남 동부권 103.5MHz)이다. /전주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배우도 아이들도...MCN과 손잡고 유튜브 안착

콘텐츠 제작·운영력 갖춰

백종원 ‘다들 요리하는데요’ 대표가 본인만의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비책’은 지난해 6월 개설한 후 7개월여 만에 구독자 330만명을 달성했다. 이 계정은 구글이 선정한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채널 중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이 성장한 10개 채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배우 한예슬이 지난해 9월 시작한 일상 유튜브 ‘한예슬 이즈(is)’도 이달 기준 구독자 63만명을 기록한다.

유튜브가 ‘대세 미디어’가 되면서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스타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채널 운영 노하우와 제작 역량을 갖춘 국내 MCN(Multi Channel Network)이 연예인과 협업하는 사례도 늘었다.

그중에서도 CJ ENM의 1인 창작자 지



‘백종원의 쿠키로그’

원 사업인 다이아 티비(DIA TV)는 최근 연예인과의 협업이 활발하다.

다이아 티비는 33년 차 개그우먼 박미선과 협업해 ‘Z세대’ 문화를 체험하는 웹예능 채널 ‘미선 임파서블’에 지난 10일 첫 콘텐츠를 올렸다. 박미선이 공용 전통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B급 디지털 편집을 가미해 재미를 더했다. 티저와 첫 영상을 올린 후 현재 구독자 2만여 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차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99억의 여자(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KTA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시범경기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능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재)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우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BBB삼삼사의 모험 50 뽀빠뽀 모야야 놀자 스페셜	
4	00 시사간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40 제21대 총선 정당정책연설 <자유한국당>	00 신년특집 정재영의 이수IN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제21대 총선 정당정책연설 <더불어민주당>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쉿!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종우돌 전국 유망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특집다큐 포구만리 스페셜	00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송터 40 KBS 특별기획 2020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10 개그 콘서트(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능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30 아웅명명 귀여워2(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소스근소 이베리아 -윗마을과 아래마을 사이>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겨울엔 울주 3부 간절꽃, 바다에 기대어 살다>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아웅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2:45 극한직업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3:35 EBS 초대석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음 12월 28일 甲子)

<p>36년생 근원부터 해결해야 바로 잡을 수 있겠다. 48년생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다. 60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72년생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만한 영향력이 있다. 84년생 주저하지 말고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96년생 행운을 전해주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리라. 행운의 숫자 : 20, 11</p>	<p>42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54년생 회복세를 돌아서리라. 66년생 작은 이익 앞에서 현혹될 필요는 없다. 78년생 하나하나 빼집없이 잘 살펴보고 지 않는다면 절대로 못 찾을 것이다. 90년생 완급의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02년생 신중하게 선택하라. 행운의 숫자 : 21, 59</p>
<p>37년생 집착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49년생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61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바가 무너질 수 있다. 73년생 흥사가 무뎠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다. 85년생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성과를 도출 하겠다. 97년생 옛 것으로부터 길함이 따를 수다. 행운의 숫자 : 96, 70</p>	<p>31년생 중독되는 부분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43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55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능률적이다. 67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대하라. 79년생 선택을 할 때라. 91년생 상호간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88, 54</p>
<p>38년생 초심을 잃지 말라. 50년생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62년생 술선수법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74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할 것이니 바짝 잡아 당겨줘야만 한다. 86년생 위기관리 능력이 요망된다. 98년생 압박하였으니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8, 19</p>	<p>32년생 충분한 성과를 거둔다. 44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담감도 생긴다. 56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히 대비하라. 68년생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80년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92년생 유익한 이외의 만남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39, 08</p>
<p>39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공으로 이끈다. 51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3년생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보면 오해가 풀리면서 불만이 해소되리라. 75년생 상부상조를 잘 해 나가라. 87년생 뻔하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 있느니라. 99년생 평소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79</p>	<p>33년생 거저 얻다시피 할 것이다. 45년생 기본적인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57년생 팔 심은데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니라. 69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81년생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3년생 기쁨은 짧고 아쉬움은 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5, 31</p>
<p>40년생 고통이 따를 것이니 단단히 각오 해야겠다. 52년생 적절한 절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64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 실효적이다. 76년생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가 되었다. 88년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때이다. 00년생 눈이 어두워진 이치로다. 행운의 숫자 : 54, 99</p>	<p>34년생 맹목적이란 무의미하다. 46년생 흥왕의 기운이 넘치니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58년생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상황임을 감안하자. 70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82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94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행운의 숫자 : 35, 90</p>
<p>41년생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53년생 예상 했던 대로 별 탈 없이 진행되리라. 65년생 상징성을 이해해야 속뜻을 파악할 수 있다. 77년생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89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중구적인 결과는 같다. 01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12</p>	<p>35년생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7년생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59년생 상부상조 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71년생 상대의 태도에 좌우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83년생 신속성 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95년생 용호상박의 치열한 경쟁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6, 02</p>